

정주호 생수감별사

# 20종류의 다른 물맛을 감별하다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던 대동강 물을 팔던 봉이 김선달의 일화는 더는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생수를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고 '워터 카페'라는 말도 생소하지만은 않다. 생수까지 꼼꼼하게 따져 마시는 소비자에게 생수를 권하고 생수에 대해 알리는 생수감별사 정주호 씨를 만났다.

## 각각 다른 맛이 나는 물을 추천하는 생수감별사

최근 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닌 '건강한 생활을 돕는 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정주호 씨는 건강한 생활을 돕는 물을 추천하고 물의 맛을 감별할 수 있는 생수감별사다. 아직 국내에는 생수감별사의 자격을 주는 시험이나 자격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속한 회사(이윤홀딩스)에서 해양심층수 사업에 참여하면서 스스로 생수에 대해 공부했다. 그 결과 현재는 20여 개의 생수 맛을 구별해낸다. 생수에 대해 공부한 끝에 더불어 공인된 와인 소믈리에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생수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광천수, 기존 생수에 탄산을 섞은 탄산수, 나무에서 뽑아낸 나무 수액, 그리고 수심 200m 이상의 깊은 바닷물에서 취수한 해양심층수가 있습니다.”

생수 맛을 구별해내는 것은 생수의 상쾌함, 맑음, 둔탁함, 감칠남, 짝 참 등 다섯 가지다. 미네랄의 함유에 따라 특유의 향기가 나고 상쾌한 맛과 둔탁한 맛이 구별된다.

“생수 맛을 구별해내기까지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생수를 마시고 느끼고 또 여러 사람에게 권할 때 스스로 습득되는 것입니다.” 정주호 씨는 생수감별사답게 상황에 맞는 물을 추천해주기도 한다.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는 탄산수로 느끼함을 덜어주는 것이 좋고 목 넘김이 편한 물을 찾는다면 미네랄이 많이 함유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기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소중한 물

물은 인체 내에서 소중한 역할을 한다. 음식은 먹지 않고도 2~3주간 견딜 수 있지만, 물은 마시지 않으면 10시간도 견딜 수 없으며, 5%만 탈수가 되어도 혼수

상태에 빠질 만큼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다. 물이 사람의 몸에서 영양소를 용해, 흡수, 운반해서 각 세포에 공급하는 만큼 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특히 최근 일본 원전 폭발에 따른 방사능 누출과 구제역 피해로 건강한 물을 찾고자 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다. 정주호 생수감별사는 해양심층수를 추천했다.

“해양심층수는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미국, 노르웨이 다섯 국가에서 취수하고 있어요. 보통 수심 200m 이상의 깊은 바닷물을 의미하는 해양심층수는 햇빛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닷속에 존재하는 물이죠. 청정성이 뛰어나고 천연미네랄이 풍부한 물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돕는 물을 연구하고 물의 맛을 감별하는 그의 건강은 어떨까? 그는 웃으며 “처음에 공부할 때는 물의 맛을 비교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다. 그러나 물을 마시고 연구할수록 피부도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물이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앞으로 더 많은 생수를 연구할 계획입니다.” **MEDI<sup>CHECK</sup>**



“생수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광천수,  
기존 생수에 탄산을 섞은 탄산수,  
나무에서 뽑아낸 나무 수액,  
그리고 수심 200m 이상의 깊은  
바닷물에서 취수한 해양심층수가  
있습니다.”

